

신뢰가 지역사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속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현서** · 한동우***

본 논문의 목적은 신뢰와 소속감이 지역사회 참여와 형성하는 관계를 분석하고 소속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있다. 신뢰, 소속감, 지역사회 참여 간 상관분석 결과, 지연 신뢰는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 거주지역 홈페이지 방문, 거주지역에서 사회활동 참여와 유의미한 관계를, 학연·혈연 신뢰는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 거주지역 홈페이지 방문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소속감의 경우, 지연 신뢰와 학연·혈연 신뢰,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 거주지역 홈페이지 방문, 거주지역에서 사회활동 참여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주요 변수 간 유의미한 상관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소속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지연 신뢰와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의 관계에서는 완전 매개, 지연 신뢰와 거주지역 홈페이지 방문, 거주지역에서 사회활동 참여, 학연·혈연 신뢰와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 거주지역 홈페이지 방문과의 관계에서는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접근 장벽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두어 지역사회는 지역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 및 연계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둘째,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교류 방법을 지역사회에 적용함으로써 많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회사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 신뢰, 소속감, 지역사회 참여, 매개변수, 회귀분석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 일부를 기반으로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I. 연구의 목적

지역주민은 지역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한 핵심 참여 주체이다. 지역주민에게 형성되는 신뢰와 소속감은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기능한다. 신뢰와 소속감이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는 요인이라면 지역사회 참여는 지역사회 소멸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 현상이다. 그러나 지역사회 참여라는 사회현상은 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역사회 참여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기에 신뢰와 소속감이 지역사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는 공중보건위기를 겪은 이후 공동체 의식에 변화가 일어나는 사회를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는 향후 지역사회 참여를 향상할 수 있는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오늘날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마다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로 인해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둘째,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아닌 삶의 질 향상을 우선시하며 수도권으로의 지역 이동을 추구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교류가 온라인에서도 가능해지면서 교류를 위한 공간의 확대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기한 지역사회 문제들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사회적 자

** 제1저자. 강남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본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더욱 요구된다.

Putnam(2001)은 사회적 자본 변화에 대한 연구가 소중하다 강조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측정되어 신뢰할 만한 자료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박병진(2007), 장수찬(2007) 또한 신뢰 하락이 중요한 사회정치적 결과를 초래하기에 학문적 주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신뢰 하락에 대한 논의는 주로 이론적 논의에 집중되어 있고 본격적인 분석에는 이르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거, 교통, 의료, 교육, 환경 문제 등을 지역적 공동체성의 회복을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이기송, 2024).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사회 내 신뢰와 소속감이 지역사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확산과 지역사회 소멸을 예방하기 위해 신뢰가 지역사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을 소속감이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정리하면, 지역사회는 신뢰, 네트워크, 규범과 같은 사회적 자본과 소속감처럼 개인의 상호작용에 따라 형성되는 요인을 기반으로 공동의 관심사와 지역사회가 가진 문제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사회로 정의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내 신뢰와 소속감 향상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소멸을 예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연구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이론과 선행 연구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신뢰

Hanifan(1916)은 지역사회 구축이라는 작업을 수행하기 전, 자본이 축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면 사회적 욕구의 충족과 공동체의 생활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 잠재력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남옥·석승혜·장안식(2016)은 사회적 자본이 1980년대 부르디외와 콜먼을 계기로 퍼트남과 후쿠야마 등 많은 학자에게 전파되어 학자마다 상이한 방식으로 수용, 확장됨에 따라 개념적 혼란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송경재(2008)도 사회적 자본 연구는 진화하고 있으며 국가, 지역 단위의 상이한 문화에 따라 이질적으로 표출된다고 설명하며 시민참여 가능성을 부각시켜 민주주의의 성과와 효능감 강화에 유용한 이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다각도로 정의되고 있기에 국내외 학자들의 정의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Bourdieu(1986)는 사회적 자본이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되는 잠재적인 자원의 집합체이며 네트워크 크기와 본인의 권리에 따라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양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를 신뢰,

정보채널, 도덕적 의무, 규범이라 설명했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존재하여 활동을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Putnam(2001)은 사회적 자본 이론이 사회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사회적 접촉이 개인과 집단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며 사회적 자본을 개인들 사이의 연계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 신뢰의 규범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연계(bridging)’ 유형과 ‘결속(bonding)’ 유형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계형 자본은 외부 지향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망라하고 광범위한 정체성과 호혜성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결속형 자본은 내부 지향적이며 단체의 동질성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어 개별적 호혜성을 강화하고 연대성을 동원하는데 유용하다고 보았고 연계형 자본과 결속형 자본 모두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혜원·문형구(2006)는 사회적 자본을 사회구조 속 행위자의 목적 달성을 위한 행위를 촉진하는 메커니즘이라 정의를 내렸고 사회적 자본에 다른 자원이 투자될 수 있으며 미래의 어떤 이익을 기대하고 오래 지속되는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키고 결속감에 대한 우수한 형태의 이익을 얻고 다른 행위자와의 관계에 존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성모·황진수·류지성(2011)도 사회자본에 대해 신뢰, 상호 관계, 협력과 관계가 있는 시민의 일련의 가치와 태도를 구성하는 것이라 정의하며 사회자본이 축적된 사회는 구성원의 신뢰와 상호 관계가 활발해진다고 설명했다. 김남옥 외(2016)는 사회적 자본에 대해 사람들을 협력할 수 있게 도와주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집단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무형의 자산이라 정의했다. 김경환·박진우(2023)는 사회적 자본이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현되며 네트워크, 규범, 신뢰로 구성되고 집단 목표에 대한 헌신, 행위자 간의 믿음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는 신뢰,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으로 정리할 수

있다. 송경재(2013)는 신뢰가 사회적 자본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다층적인 개념이기에 신뢰와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에 신뢰의 정의에 대해 이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 조직에 대한 신뢰, 이웃이나 타인에 대한 신뢰 등 신뢰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황창호·이남국, 2018). 김남옥 외(2016)는 최근 한국 사회가 신뢰에 관한 학문적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점차 정치적 사회참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였다. 더하여 지구화, 신자유주의 등 구조적 변동으로 인한 불평등 심화와 사회불안이라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사회적 신뢰를 감소시킨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남옥 외(2016)는 신뢰를 사회관계에 기초가 되고 정치적 사회참여 유도, 호혜성 및 협력 행위 촉진,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시민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실질적 민주화의 정착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정의했다. Putnam(2001)은 사회적 신뢰를 다양한 형태의 시민적 참여와 사회적 자본이 강하게 결부되어 있는 공동체의 귀중한 자산이라 설명했다. 신뢰는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단체생활, 공공 활동에 있어 행태, 태도, 성향에 기초가 되며 집단 복지 문제 해결 수준과 개인 간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박용순·송진영, 2013; 백유성·최재욱·김성근·우선창, 2013). 이러한 신뢰의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중 신뢰에 주목할 예정이며, 이어서 신뢰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박병진(2007)은 신뢰 대상을 기준으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람과의 신뢰와 타인에 대한 신뢰를 포함한 대인 신뢰, 개인이 속한 가장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에 대한 사회 신뢰로 구분하였고 사회 신뢰 축적에 있어 대인 신뢰는 필요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김시윤(2009)은 신뢰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 간 신뢰는 지식을

공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신뢰 관계에는 혈연, 지연, 학연으로 발생하는 사적 신뢰와 자신이 속한 공동체 또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일부 사람들 간에 형성되는 공적 신뢰(김시윤, 2009, 한상미, 2011 재인용)로 구분된 경우도 있다. 최예나(2016a)는 신뢰를 사회적 신뢰(대인 간 신뢰)와 제도적 신뢰(의회, 정부, 정치와 같은 대의적 또는 정치적 제도에 의한 신뢰)로 구분했다. 김기동·이정희(2017)는 신뢰를 일반 신뢰(우리 사회 일반과 일반인)와 공적 신뢰(국회, 사법부, 중앙정부)로 구분하여 활용하였다. 차재권·류태건(2018)은 대인 신뢰를 사람들에 대한 신뢰라고 정의하며 특수 신뢰(잘 아는 가까운 사람들과 일반 신뢰(잘 모르는 일반적인 타자)로 구분했다.

앞서 살펴본 신뢰는 대상을 기준으로 구분되었다면, 신뢰의 정도를 고려한 다른 구분 방식도 존재한다. Putnam(2001)은 넓은 네트워크 속 깊이 자리 잡은 관계의 두터운 신뢰와 새로 알게 된 사람과의 얇은 신뢰로 구분하였고 두터운 신뢰의 사회적 거리는 반경이 좁고 얇은 신뢰의 사회적 거리는 먼 사람들도 신뢰하기에 얇은 신뢰가 더 유용하다 설명했다. 이종화·정진경(2022)도 두터운 신뢰(친숙하고 가까운 사람에 대한 신뢰, 가족, 친척, 친구 등)와 얇은 신뢰(잘 모르거나 사회적으로 자신과 비슷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신뢰, 낯선 사람, 타 종교인, 외국인 등에 대한 신뢰)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에서 자주 활용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신뢰란 의사소통 유지로부터 여러 형태의 시민적 참여와 결부되는 공동체의 귀중한 자산으로 개인행동에 기본 전제가 되는 핵심 요소로 정리할 수 있다. 신뢰의 유형은 주로 대인 신뢰, 사회 신뢰로 구분되었다. 사회적 자본의 범주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각기 다른 연구 결과를 도출(김기동·이정희, 2017)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Putnam(2001)이 설명한 얇은 신뢰가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과 박병진(2007)이 설명한 대인 신뢰가 사회 신뢰 축적에 있어 필요조건이라 설명한 점에 초점을 두어 신뢰를 지연 신뢰(일반적 타인과의 관계에서 형성)와 학연·혈연 신뢰(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로 구분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2. 지역사회 참여

다변화된 사회에서 정책의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정책 참여(송진미, 2021)는 중요하다. 김남옥 외(2016)는 최근 정치적 무관심이 화두가 되고 있으며 삶의 문제, 공적인 문제를 공론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고 설명했다. 홍혜승·류은영(2015)은 시민의 정치참여를 대의 민주주의하에 정부의 반응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시켜 민주주의의 질을 개선하는 활동이라 설명했다. 이를 지역 구성원의 지역 사회 참여에 적용하면 지역 구성원의 상호작용과 참여에 있어 지역사회의 반응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선행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참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인숙(2015)은 지역사회 참여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체적으로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지역의 공통된 사안에 대해 전문가와 협력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해결하려는 자발적인 참여라 정의했다. 김지영·정문기(2024)는 주민 참여를 주민으로서 권력을 행사하며 자신의 삶과 직결된 공공 서비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행동이라 설명하며 주민 참여를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제도 및 정책과 관련해 더 높은 수준의 책임과 의사결정 권한을 획득하는 과정

이라 정의했다. 주민 참여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편익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알리고 이를 제공받음으로써 지역의 건전한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최예나, 2016a)한다. Putnam(2001)은 과거와 달리 새로운 회원들이 유입되지 못하면서 요즘의 지역사회 단체들이 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Putnam(2001)의 지적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현 사회는 지역마다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다르기에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가 활발해야 하지만 새로운 회원의 유입이 없어 다양한 주체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지역사회 참여는 지역주민의 상호작용과 참여에 있어 지역사회의 반응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와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지역사회 참여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지역사회 참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경영·김범석·정문기(2018)의 연구에서는 주민 참여를 정보제공형 참여(설명회 및 공청회 참여), 적극적 참여(지역문제에 직접 의견 제시), 협력적 참여(정부와 협의 및 토론 시도)로 구분하였다. 고명철·이아람(2019)의 연구에서는 시민참여를 선거 참여(투표), 정부주도 참여(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참석), 시민주도 참여(인터넷 게시판, 민원 창구, 시민 제안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의견 제안)로 구분하였다. 송진미(2021)의 연구에서는 주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 정치사회 관심도, 거주지역에서의 사회활동(홈페이지 방문, 정부 SNS 방문, 사회활동 참여), 정치효능감을 활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지역사회 참여 및 측정 유형을 기반으로 정치사회 관심도, 거주지역 홈페이지 방문, 거주지역에서 사회활동 참여로 구분하여 지역사회 참여를 활용하고자 한다.

3. 소속감

김남옥 외(2016)는 신뢰와 협력이 선순환적 관계를 형성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자본은 선순환적 관계를 형성하여 신뢰는 협력을, 협력은 참여를, 참여는 신뢰를 형성하는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뢰는 제3변수에 영향을 주고 제3변수가 지역사회 참여에 다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소속감이 신뢰와 지역사회 참여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McMillan&Chavis(1986)는 소속감에 대해 자신이 그룹에 포함되어 있다는 느낌, 믿음, 기대, 그룹에 대한 수용감, 그룹을 위한 의지라고 정의했다. 김철호(2009)는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지역사회 내적 측면에서 지역주민 내면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고양시켜주며 행정적 측면에서는 지역주민의 외부이탈 방지, 조직 네트워크 강화, 지역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활성화 기여, 지역사회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동기로 기능한다고 설명했다.

김재선·김공수·이국용(2014)은 소속감을 구성원 간 지식 공유 활동과 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 확인된 바가 있고 공동체에 속해있는 것은 정체성, 공통적 상징 체계를 함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다른 공동체 의식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 구성원의 행위를 촉진하는 중요한 매개 변수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설명했다. 리젠핑(2020)은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소속감을 외부 환경이 사람에게 적용되어 생기는 내적·주관적 인식으로 보며 소속감은 사회심리 현상이고 외부환경과 인간 행동 사이에 있는 매개변수로 보았다. 이경영(2019)또한 지역사회의 정책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민 참여 활성화에 주목하여 소속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속감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주민 참여 증대를 위해서

는 지역사회 소속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소속감은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변수로 외부 이탈 방지와 지역사회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동기로 기능한다. 또한 소속감은 조직 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여주며 외부환경과 인간 행동 사이에 있는 매개변수로 기능한다.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소속감은 신뢰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참여를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매개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4. 신뢰, 지역사회 참여, 소속감의 관계

사회적 자본 중 신뢰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선행 연구들은 정책적·사회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신뢰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대인 신뢰를 구성하는 일반적 타인과 잘 알고 지내는 사람에 대한 신뢰의 영향력을 비교하는 것은 중요하다. 선행연구를 참고해 신뢰와 지역사회 참여, 소속감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신뢰와 지역사회 참여

김남옥 외(2016)는 신뢰를 기반으로 사회적 연대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치적 사회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대인 신뢰가 높아질수록 사회참여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으나 제도 신뢰는 사회참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사회참여는 대인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최예나(2016b)는 지방정부에서 주민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

였다. 그 결과, 주민 간 신뢰가 높을수록, 주민 간 소통이 활성화될수록 주민 참여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김기동·이정희(2017)는 일반 신뢰(우리 사회 일반, 일반인)가 높을수록 투표 참여에 적극적이며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자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재현(2020)은 사회적 신뢰의 선거 참여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특수 신뢰(가족·친구·이웃·직장동료 등)는 대선·총선에, 일반 신뢰(일반적 타인)는 지방선거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진범섭(2024)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COVID-19) 기간에 응답을 수집하여 도덕적 신뢰(일반적 신뢰와 거의 동일한 개념, 낯선 타인들에 대한 믿음)가 시민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덕적 신뢰는 공중 감염병 시기 동안 타인에 대한 공동된 관심을 통해 구성원들을 묶어주며 시민적 참여를 이끄는 선행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송진미(2021)는 거버넌스와 신뢰수준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에 주민의 능력과 역할은 참여 의지와 연결되고 원활한 활동과 질 높은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행위자 간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 제언했다.

2) 신뢰와 소속감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신뢰수준은 다른 사회적 자본 변수들과도 연결되어 있다(송진미, 2021). 신뢰는 해당 공동체 내에서의 구성원 간 믿음으로 연대감과 신용도를 확장시켜 참여를 촉진(송경재, 2013)하는 자본이다. 김재선·김공수·이국용(2013)은 구성원 간 팀 공동작업 협력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구성원 신뢰가 소속감과 팀 협력의지에, 소속감도 팀 협력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에 신뢰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팀을 구성하고 팀 내

소속감을 높이는 것이 구성원 간 협력을 촉진하는 방법이라 제언하였다. 김기동·이정희(2017)는 신뢰와 정치참여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높을수록,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증진과 함께 주인의식 형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오승은·이정주·황은진·최시인·노승용(2018)은 우리나라 국민통합 수준 인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민 간 신뢰수준의 경우 부정적 59.2%, 긍정적 11.5%, 중립 28.8%로 국민 간 신뢰수준이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구성원 결집력의 경우 부정적 64.2%, 긍정적 14.0%로 구성원 결집력 또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준영·최낙혁(2018)은 커뮤니티 소속감에 대한 영향 요인을 탐색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자원은 사회적 자본, 경제 자본, 문화 자본으로 확인되었고 각 자본이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자본이 소속감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커뮤니티 소속감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 향상을 위한 노력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제언하였다.

3) 소속감과 지역사회 참여

개개인은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끼고 이에 동일화될수록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공동체의 행정 및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고명철·이아람, 2019). 김재선 외(2014)는 구성원 소속감, 신뢰, 성과 기대가 구성원의 협력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팀 협력행위에 있어 소속감과 신뢰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팀 내 협력행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 신뢰와 소속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고명철·이아람(2019)은 지방정부 신뢰와 시민참여의 관계가 공동체 의식의 효과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동체 의식은 사회참여에 유의미한 관계

를 나타내었고 주민들의 참여가 공동체 의식에 의해 이루어지며 정책 수립, 실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동민·백유영·이상호(2021)는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지역공동체의 하위 요인 중 소속감이 지역발전에 제일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에 소속감이 있는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에 대한 쉬운 접근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경영(2019)은 오늘날 지역사회의 정책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민 참여 활성화에 주목하며 지역사회 소속감이 주민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사회 소속감과 주민 참여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구조모형 분석 결과에서도 지역사회 소속감이 주민 참여에 대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주민 참여 증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소속감의 역할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함의를 제시하였다.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신뢰의 영향력을 확인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신뢰를 대인 신뢰와 사회 신뢰로 구분하여 각 신뢰 간의 영향력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신뢰의 영향력은 사회 신뢰보다 대인 신뢰가 높아질수록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는 유사한 흐름의 연구 결과가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인 신뢰를 지연, 학연, 혈연과 같은 세부적인 요인으로 구분하여 신뢰의 영향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신뢰 요인을 보다 섬세하게 구축하여 각각의 영향력을 비교·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신뢰와 소속감이 단독으로 또는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다수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역사회가 신뢰와 소속감 형성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직면시켜 주는 연구 결과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선순환 관계에 초점을 둔 신뢰의 형성,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소속감의 형성을 강조하였다. 신뢰의 형성에 따라 결속력, 주민 능력, 참여 의지에 영향을 주어 지역사회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높은 신뢰는 소속감 향상을 이끌어내고 지역사회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Ⅲ.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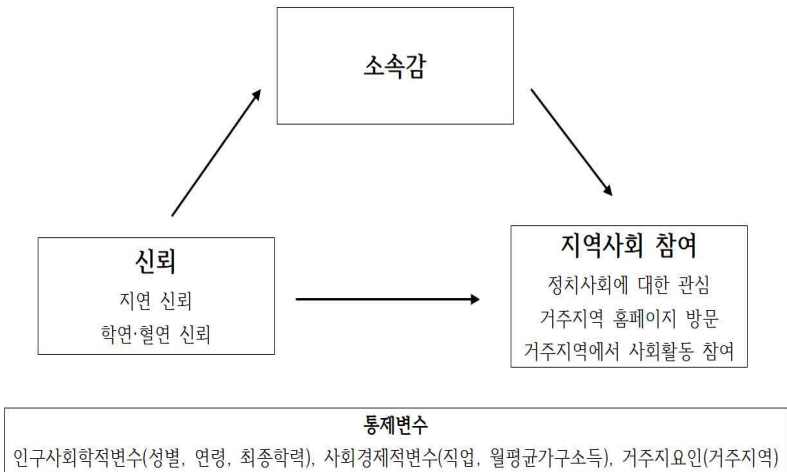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신뢰, 지역사회 참여, 소속감이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주요 변수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과 연구 가설을 설정한 후 이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신뢰가 지역사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소속감이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패널데이터 분석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에 활용된 패널데이터로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21년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뢰와 거버넌스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이며 해당 조사의 설문 문항과 응답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주요 변수로 신뢰는 독립변수, 지역사회 참여는 종속변수, 소속감은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변수 간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예영·박현정(2024)은 변수 간의 잘못된 해석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인변수와 결과변수, 원인변수와 매개변수, 매개변수와 결과변수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그림-1>과 같이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1> 연구모형

분석 도구로는 SPSS 25.0을 활용하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 신뢰가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둘째, 신뢰가 지역사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셋째, 소속감이 지역사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넷째, 신뢰가 지역사회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소속감이 매개변수로서 작용하는지 검증한다.

주요 변수 간의 관계 및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수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는지 확인한다. 둘째,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을 검증하고 통제변수와 독립변수, 종속변수 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셋째, Baron&Kenny(1986)가 제시한 매개변수 회귀분석 3단계를 통해 소속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Sobel Test를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함께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가설

본 연구는 대인 신뢰와 사회 신뢰 중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대인 신뢰에 초점을 두었다. 첫째, 신뢰가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둘째, 신뢰가 지역사회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셋째, 소속감이 지역사회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넷째, 소속감이 매개변수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신뢰는 소속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신뢰는 지역사회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소속감은 지역사회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신뢰가 지역사회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 미치는 과정을 소속감이 매개할 것이다.

3. 연구자료

본 연구는 2021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신뢰와 거버넌스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한다. 2021년에 시행된 조사는 기존에 누락되었던 지방 거버넌스에 대한 항목들을 추가함으로써 지방 거버넌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를 파악(송진미, 2021)하였고 신뢰에 대한 자료 축적에 목표를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신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사회 참여를 측정하는 문항에 있어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질문하기에 지역사회를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IV. 분석결과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분석 절차를 통해 확인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주요 변수 간의 관계와 소속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변수에 대한 신뢰도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1>과 같다. 요인적재량의 경우 모두 0.5 이상, 신뢰도의 경우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 요인적재량 및 신뢰도 계수

변수		측정변수	요인적재량	Cronbach's α
신뢰	지연 신뢰	거주지역 주민(시·도)	0.912	.855 (2.830)
		거주지역 주민(시·군·구)	0.906	
		고향 동료	0.785	
		낯선 사람	0.750	
	학연·혈연 신뢰	친인척	0.798	.771 (2.337)
		학교 동료	0.794	
		친구	0.775	
직계가족		0.713		
소속감		시·도 소속감	0.953	.898 (1.816)
		시·군·구 소속감	0.953	
지역 사회 참여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	시·도 지역문제	0.865	.907 (4.098)
		시·도 추진 정책	0.854	
		시·군·구 추진 정책	0.853	
		시·군·구 지역문제	0.829	
		정부 추진 정책	0.782	
		사회경제적 문제	0.771	
	거주지역 홈페이지 방문	시·도청 홈페이지	0.948	.886 (1.796)
		시·군·구청 홈페이지	0.948	
	거주지역에서 사회활동 참여	사회적 경제조직	0.898	.914 (3.181)
		지역 공청회 및 간담회 참여	0.893	
		지역사회 모임	0.892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봉사 및 재능기부		0.884		

2.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평균과 표준편차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2〉와 같다. 회귀분석 실시를 위해서는 오차항의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Kline(2010)은 왜도가 절댓값 3을 초과할 경우 극단적, 첨도가 8 또는 10을 초과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측정 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검토한 결과, 모두 절댓값 1 이내로 확인되어 측정 변인에 대한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3〉 상관관계 분석

변수		1	2	3	4	5	6
1	지연 신뢰	1.00					
2	학연·혈연 신뢰	.556 **	1.00				
3	소속감	.347 **	.265 **	1.00			
4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	.191 **	.203 **	.445 **	1.00		
5	거주지역 홈페이지 방문	.182 **	.051 *	.316 **	.471 **	1.00	
6	거주지역에서 사회활동 참여	.295 **	.038 (.056)	.336 **	.366 **	.565 **	1.00

〈표-2〉 기술통계 분석

변인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독 립 변 인	지연 신뢰	1.00	5.00	2.71	0.677	-.133	.084
	학연·혈연 신뢰	1.00	5.00	3.64	0.614	-.606	.637
종 속 변 인	소속감	1.00	5.00	3.13	0.872	-.338	-.057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	1.00	5.00	3.27	0.727	-.251	.294
	거주지역 홈페이지 방문	1.00	5.00	2.75	0.982	-.112	-.824
	거주지역에서 사회활동 참여	1.00	5.00	2.24	0.923	.254	-.800

* $p < .05$, ** $p < .01$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3〉과 같다. 지연 신뢰의 경우 $p < .01$ 수준에서 소속감,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 거주지역 홈페이지 방문, 거주지역에서 사회활동 참여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학연·혈연 신뢰의 경우 $p < .01$ 수준에서 소속감,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 $p < .05$ 수준에서 거주지역 홈페이지 방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소속감의 경우 $p < .01$ 수준에서 신뢰, 지역사회 참여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3. 다중회귀분석 및 매개효과 검증

1) 다중회귀분석

〈표-4〉 신뢰가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p)	다중공선성 공차		
	B	표준화오류	β				
(상수)	2.165	.101		21.530			
독립변수	지연 신뢰	.123	.025	.115	4.910 ***	.681	
	학연·혈연 신뢰	.128	.028	.108	4.561 ***	.662	
통제변수	연령	.006	.001	.119	5.712 ***	.859	
	성별	.098	.030	.067	3.260 **	.870	
	최종 학력	-.049	.035	-.030	-1.374	.787	
	월평균 가구소득	-.070	.031	-.045	-2.246 *	.912	
	직업	사무관리직	.065	.036	.045	1.828	.626
		생산직	.033	.059	.012	.555	.814
		영업직	.083	.052	.034	1.602	.822
	거주지역	-.020	.029	-.014	-.699	.965	
F	19.457 ***						
R ²	.073						
Durbin-Watson	2.014						

* $p < .05$, ** $p < .01$, *** $p < .001$

성별 : 남=1, 여=0, 최종 학력 : 고졸 이하 =1, 대졸 이상 =0

월평균 가구소득: 월 500 미만=1, 월 500 이상=0, 직업 : 기타=0, 거주지역 :

지방=1, 수도권=0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변수, 사회경제적 변수, 거주지 요인이 통제된 상태에서 신뢰가 지역사회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신뢰가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에 미치는 영향은 〈표-4〉와 같다.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에 있어 신뢰의 설명력은 7.3%로 지연 신뢰의 영향

력은 B=.123(p<.001), 학연·혈연 신뢰의 영향력은 B=.128(p<.001)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 연령(B=.006, p<.001), 성별(B=.098, p<.01), 월평균 가구소득(B=-.070, p<.05)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여자보다 남자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월평균 소득이 낮아질수록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표-5〉 신뢰가 거주지역 홈페이지 방문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다중공선성	
		B	표준화오류	β		공차	
(상수)		2.213	.137		16.172		
독립변수	지연 신뢰	.329	.034	.226	9.602 ^{***}	.681	
	학연·혈연 신뢰	-.132	.038	-.083	-3.461 ^{**}	.662	
통제변수	연령	-.001	.001	-.008	-.376	.859	
	성별	.035	.041	.018	.858	.870	
	최종 학력	-.111	.048	-.051	-2.312 [*]	.787	
	월평균 가구소득	-.025	.042	-.012	-.589	.912	
	직업	사무관리직	.213	.048	.108	4.407 ^{***}	.626
		생산직	.084	.080	.023	1.043	.814
		영업직	.230	.070	.070	3.272 ^{**}	.822
거주지역	.099	.039	.051	2.555 [*]	.965		
F		15.141 ^{***}					
R ²		.057					
Durbin-Watson		2.057					

* $p < .05$, ** $p < .01$, *** $p < .001$

성별 : 남=1, 여=0, 최종 학력 : 고졸 이하 =1, 대졸 이상 =0

월평균 가구소득: 월 500 미만=1, 월 500 이상=0, 직업 : 기타=0, 거주지역 : 지방=1, 수도권=0

신뢰가 거주지역 홈페이지 방문에 미치는 영향은 <표-5>와 같다. 거주지역 홈페이지 방문에 있어 신뢰의 설명력은 5.7%로 지연 신뢰의 영향력은 $B=.329(p<.001)$, 학연·혈연 신뢰의 영향력은 $B=-.132(p<.01)$ 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 최종 학력($B=-.111, p<.05$), 거주지역($B=.099, p<.05$), 사무관리직($B=.213, p<.001$), 영업직($B=.230, p<.01$)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종 학력이 낮아질수록 거주지역 홈페이지 방문이 줄고, 수도권에 비해 지방 지역이, 사무관리직과 영업직에 가까울수록 거주지역 홈페이지 방문이 높을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표-6> 신뢰가 거주지역에서 사회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다중공선성	
		B	표준화 오류	β		공차	
(상수)		1.663	.124		13.435		
독립변수	지연 신뢰	.545	.031	.400	17.606 ^{***}	.681	
	학연·혈연 신뢰	-.300	.035	-.200	-8.671 ^{***}	.662	
통제변수	연령	.001	.001	.022	1.074	.859	
	성별	.112	.037	.061	3.015 ^{**}	.870	
	최종 학력	-.097	.044	-.047	-2.218 [*]	.787	
	월평균 가구소득	-.014	.038	-.007	-.376	.912	
	직업	사무관리직	.159	.044	.086	3.648 ^{***}	.626
		생산직	.134	.072	.038	1.850	.814
		영업직	.141	.064	.046	2.213 [*]	.822
	거주지역	.025	.035	.013	.700	.965	
F		36.253 ^{***}					
R ²		.127					
Durbin-Watson		2.065					

* $p < .05$, ** $p < .01$, *** $p < .001$

성별 : 남=1, 여=0, 최종 학력 : 고졸 이하 =1, 대졸 이상 =0

월평균 가구소득: 월 500 미만=1, 월 500 이상=0, 직업 : 기타=0, 거주지역 : 지방=1, 수도권=0

신뢰가 거주지역에서 사회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표-6>과 같다. 거주지역에서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신뢰의 설명력은 12.7%, 지연 신뢰의 영향력은 $B=.545(p<.001)$, 학연·혈연 신뢰의 영향력은 $B=-.300(p<.001)$ 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는 성별($B=.112, p<.01$), 최종 학력($B=-.097, p<.05$), 사무관리직($B=.159, p<.001$), 영업직($B=.141, p<.05$)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보다 남자가, 사무관리직과 영업직에 근접할수록 사회활동 참여가 활발한 반면, 최종 학력이 낮아질수록 사회활동 참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매개효과 및 유의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 확인을 위해 Baron&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 방법을 활용하였다. <표-7>은 지연 신뢰와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 간의 관계에서 소속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7> 지연 신뢰와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 간 소속감의 매개효과

단계	모형	adj. R^2	F(p)	B	SE	β	t(p)	다중공선성		Durbin-Watson
								공차	VIF	
1	지연 신뢰 → 소속감	.128	41.684 ***	.438	.024	.339	17.994 ***	.981	1.020	1.971
2	지연 신뢰 →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	.061	19.155 ***	.187	.021	.174	8.885 ***	.981	1.020	
3	지연 신뢰 →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	.221	71.795 ***	.031	.020	.029	1.510 (.131)	.868	1.152	
	소속감 →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			.357	.016	.428	22.590 ***	.869	1.151	
Sobel test		Z					14.126			
		P					.000			

* $p < .05$, ** $p < .01$, *** $p < .001$

지연 신뢰는 소속감과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 소속감은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에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속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2·3단계의 지연 신뢰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beta = .174$ 에서 $\beta = .029$ 로 감소하여 소속감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고 3단계에서 지연 신뢰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완전매개역할을 수행하는 것($Z = 14.126$, $p < .001$)으로 확인되었다.

〈표-8〉 지연 신뢰와 거주지역 홈페이지 방문 간 소속감의 매개효과

단계	모형	adj. R^2	F(p)	B	SE	β	t(p)	다중공선성		Durbin-Watson
								공차	VIF	
1	지연 신뢰 → 소속감	.128	41.684 ***	.438	.024	.339	17.994 ***	.981	1.020	1.971
2	지연 신뢰 → 거주지역 홈페이지 방문	.049	15.424 ***	.263	.029	.181	9.207 ***	.981	1.020	2.036
3	지연 신뢰 → 거주지역 홈페이지 방문	.122	35.813 ***	.120	.029	.083	4.124 ***	.868	1.152	
	소속감 → 거주지역 홈페이지 방문			.326	.023	.290	14.415 ***	.869	1.151	
Sobel test		Z				11.194				
		p				.000				

* $p < .05$, ** $p < .01$, *** $p < .001$

〈표-8〉은 지연 신뢰와 거주지역 홈페이지 방문 간의 관계에서 소속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지연 신뢰는 소속감과 거주지역 홈페이지 방문, 소속감은 거주지역 홈페이지 방문에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속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2·3단계의 지연 신뢰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beta = .181$ 에서 $\beta = .083$ 으로

감소하여 소속감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고 3단계에서 지연 신뢰의 영향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역할을 수행하는 것($Z=11.194$, $p<.001$)으로 확인되었다.

〈표-9〉 지연 신뢰와 거주지역에서 사회활동 참여 간 소속감의 매개효과

단계	모형	adj. R^2	F(p)	B	SE	β	t(p)	다중공선성		Durbin-Watson
								공차	VIF	
1	지연 신뢰 → 소속감	.128	41.684 ***	.438	.024	.339	17.994 ***	.981	1.020	1.971
2	지연 신뢰 → 거주지역 사회활동 참여	.098	31.003 ***	.396	.026	.291	15.152 ***	.981	1.020	2.065
3	지연 신뢰 → 거주지역 사회활동 참여	.160	48.769 ***	.272	.027	.199	10.130 ***	.868	1.152	
	소속감 → 거주지역 사회활동 참여			.285	.021	.269	13.702 ***	.869	1.151	
Sobel test		Z		10.890						
		p		.000						

* $p < .05$, ** $p < .01$, *** $p < .001$

〈표-9〉는 지연 신뢰와 거주지역에서 사회활동 참여 간의 관계에서 소속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지연 신뢰는 소속감과 거주지역에서 사회활동 참여, 소속감은 거주지역에서 사회활동 참여에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속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2·3단계의 지연 신뢰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beta=.291$ 에서 $\beta=.199$ 로 감소하여 소속감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고 3단계에서 지연 신뢰의 영향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역할을 수행하는 것($Z=10.890$, $p<.001$)으로 확인되었다.

〈표-10〉 학연·혈연 신뢰와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 간 소속감의 매개효과

단계	모형	adj. R^2	F(p)	B	SE	β	t(p)	다중공선성		Durbin-Watson
								공차	VIF	
1	학연·혈연 신뢰 → 소속감	.079	24.857 ***	.370	.028	.260	13.231 ***	.954	1.048	1.964
2	학연·혈연 신뢰 →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	.060	18.766 ***	.205	.024	.173	8.693 ***	.954	1.048	1.998
3	학연·혈연 신뢰 →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	.224	72.964 ***	.075	.022	.063	3.371 **	.891	1.122	
	소속감 →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			.352	.015	.422	22.917 ***	.918	1.090	
Sobel test		Z				11.514				
		p				.000				

* $p < .05$, ** $p < .01$, *** $p < .001$

〈표-10〉은 학연·혈연 신뢰와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 간의 관계에서 소속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학연·혈연 신뢰는 소속감과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 소속감은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에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속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2·3단계의 학연·혈연 신뢰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beta = .173$ 에서 $\beta = .063$ 으로 감소하여 소속감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고 3단계에서 학연·혈연 신뢰의 영향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역할을 수행하는 것($Z = 11.514$, $p < .001$)으로 확인되었다.

〈표-11〉 학연·혈연 신뢰와 거주지역 홈페이지 방문 간 소속감의 매개효과

단계	모형	adj. R^2	F(p)	B	SE	β	t(p)	다중공선성		Durbin-Watson
								공차	VIF	
1	학연·혈연 신뢰 → 소속감	.079	24.857 ***	.370	.028	.260	13.231 ***	.954	1.048	1.964
2	학연·혈연 신뢰 → 거주지역 홈페이지 방문	.019	6.346 ***	.071	.032	.044	2.180 *	.954	1.048	2.035
3	학연·혈연 신뢰 → 거주지역 홈페이지 방문	.118	34.367 ***	-.066	.032	-.041	-2.068 *	.891	1.122	
	소속감 → 거주지역 홈페이지 방문			.369	.022	.328	16.738 ***	.918	1.090	
Sobel test		Z		10.380		p		.000		

* $p < .05$, ** $p < .01$, *** $p < .001$

〈표-11〉은 학연·혈연 신뢰와 거주지역 홈페이지 방문 간의 관계에서 소속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학연·혈연 신뢰는 소속감과 거주지역 홈페이지 방문, 소속감은 거주지역 홈페이지 방문에 $p < .001$,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속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2·3단계의 학연·혈연 신뢰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beta = .044$ 에서 $\beta = -.041$ 로 감소하여 소속감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고 3단계에서 학연·혈연 신뢰의 영향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부분 매개역할을 수행하는 것($Z = 10.380$, $p < .001$)으로 확인되었다.

〈표-12〉 소속감의 매개효과 회귀분석 결과

관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매개효과
지연 신뢰 →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	.029(.131)	.145	.174	완전매개
학연·혈연 신뢰 →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	.063 **	.109	.172	부분매개
지연 신뢰 → 거주지역 홈페이지 방문	.083 ***	.098	.181	부분매개
학연·혈연 신뢰 → 거주지역 홈페이지 방문	-.041 *	.085	.044	부분매개
지연 신뢰 → 거주지역에서 사회활동 참여	.199 ***	.091	.29	부분매개
학연·혈연 신뢰 → 거주지역에서 사회활동 참여	상관분석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유의하지 않은 관계로 확인			

* $p < .05$, ** $p < .01$, *** $p < .001$

소속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12〉와 같다.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학연·혈연 신뢰와 거주지역에서 사회활동 참여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든 관계에서 소속감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제시한 분석 절차에 따라 신뢰, 소속감, 지역사회 참여 간의 관계와 소속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과 함께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결론

1) 지연 신뢰와 지역사회 참여 간 소속감의 매개효과

지연 신뢰는 거주지역 주민(시·도, 시·군·구), 고향 동료, 낯선 사람이라는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지연 신뢰와 지역사회 참여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 참여 모두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낯선 사람과 거주지역 주민과의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지역사회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신뢰와 지역사회 참여 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선행 연구자(Putnam, 2001; 박병진, 2007; 백유성 외, 2013; 박용순 외, 2013; 김남옥 외, 2016; 이재현, 2020; 진범섭, 2024)의 주장과 연구 결과를 한 번 더 검증하였다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지연 신뢰와 지역사회 참여 간 관계에 대해 일맥상통한 이론과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Putnam(2001)은 연계형 자본을 외부지향적이고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정체성화 호혜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본이라 설명했다. 지연 신뢰는 거주지역 주민과 낯선 사람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참여의 모든 요인과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보아 연계형 자본의 특성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재현(2020)의 연구에서는 지역주의적 선거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 대전광역시 시민을 대상으로 표본을 구성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와는 전국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했다는 차이점이 있으나 특수 신뢰보다 일반 신뢰가 지방선거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검증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지연 신뢰와 지역사회 참여 간 소속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지연 신뢰와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 간의 관계에서는 완전매개효과, 지연 신뢰와 거주지역 홈페이지 방문, 거주지역에서 사회활동 참여 간의

관계에서는 부분매개효과를 수행하였고 매개효과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자연 신뢰의 경우 학연·혈연 신뢰보다 낮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참여의 모든 요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는 지역주민이 일반적 타인의 행위나 역할을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정도가 높지 않아도 지역주민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정치와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지역사회를 위해 참여하려는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지역주민이 일반적 타인에 대한 신뢰를 높일 기회가 지역사회 내에서 충분히 제공된다면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참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2) 학연·혈연 신뢰와 지역사회 참여 간 소속감의 매개효과

학연·혈연 신뢰는 직계가족, 친인척, 친구, 학교 동료라는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학연·혈연 신뢰와 지역사회 참여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 거주지역 홈페이지 방문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었으나 거주지역에서 사회활동 참여와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학연·혈연 신뢰와 지역사회 참여 간 관계에 대해 일맥상통한 이론과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Putnam(2001)은 결속형 자본을 내부지향적이고 단체의 동질성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어 연대성 동원에 유용한 자본이라 설명했다. 학연·혈연 신뢰는 직계가족, 친인척, 친구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과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하고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거주지역 홈페이지 방문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하였으나 부(-)의 영향을 미치고 거주지역에서 사회활동 참여와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결속형 자본의 특성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재현(2020)의 연구 결과, 특수 신뢰(가족,

친구)는 지방선거보다 대선과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속감의 영향력과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지역사회 참여의 모든 요인과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거주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형성되었을 때 지역사회 참여가 활성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소속감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해 연구한 선행 연구자(김철호, 2009; 김재선 외, 2013; 김재선 외, 2014; 리젠핑, 2020; 조동민 외, 2021)의 주장과 연구 결과를 한 번 더 검증하였다 할 수 있다.

2.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신뢰와 소속감이 지역사회 참여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과 소속감이 매개변수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연 신뢰와 학연·혈연 신뢰가 지역사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다는 점이다. 학연·혈연 신뢰는 지역사회 참여 요인 중 거주지역에서 사회활동 참여와는 유의하지 않은 관계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지연 신뢰의 경우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 거주지역 홈페이지 방문, 거주지역에서 사회활동 참여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 지연 신뢰의 연결 역할이 학연·혈연 신뢰보다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지역사회는 낯선 사람과, 거주지역 주민과의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참여라는 활동과 연결될 수 있는 과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 쟁점임을 이해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속감은 직접적으로 지역사회 참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매개변수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소속감

이 신뢰와의 연결, 지역사회 참여와의 연결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 내에서 지연 신뢰가 정보 교환을 통해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연결 역할을, 소속감이 공동체 내에서 자존감 향상과 지역사회 참여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의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접근 장벽을 낮추는 전략이 요구된다. 정치사회에 관심만 있는 지역주민에게는 설명회와 공청회 안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정치사회에 관심이 있고 거주지역의 홈페이지(예: 시·도청, 시·군·구청)를 자주 방문하는 지역주민에게는 인지하고 있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역 내에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민에게는 토론과 협의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고, 이들이 주변 이웃과 함께 참여를 논의할 수 있는 공동체 조성이 요구된다. 상기한 방식은 지역사회 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주민이 주변 이웃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신뢰와 소속감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순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참여 방법에 대한 홍보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역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알림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는 신청한 지역주민에 한해 특정 SNS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이에 해당 서비스가 더 많은 지역주민에게 확대되어 제공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방식 외에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정보를 폭넓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주민이 지역의 정보를 전달받게 되고 지역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 소속감 향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교류를 위한 공간이 확대되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는 다양한 공동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법을 참고하여 지역사회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는 회의’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방안은 대면 회의 장소와 함께 비대면 회의 참석 주소(URL)를 함께 안내하여 일정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회의 안전에 대해서도 온라인 서명 등을 통해 확인하고 의견을 논의하는 방법도 최근에는 활용되고 있다. 상기한 방안을 지역사회에 적용할 경우, 대면으로 참석하기 어려운 주민들의 의견도 파악할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줄여 공동체 운영에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지역사회라는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다는 인식이 증진되고 소속감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지역사회는 온·오프라인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을 마련하고 비대면 회의 참여를 위한 교육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본 논문은 패널데이터 분석으로 본 데이터의 설문 문항을 활용하여 신뢰, 소속감, 지역사회 참여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신뢰와 소속감,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논문은 사회적 자본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자본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는 신뢰의 영향력에 초점을 두었고 지연 신뢰와 학연·혈연 신뢰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은 의의가 있다. 하지만 사회적 네트워크와 호혜적 규범의 영향력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신뢰,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사회적 자본이 지역사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25년 4월 8일 접수, 5월 18일 심사완료, 5월 18일 게재확정)

참고문헌

- 고명철·이아람. 2019. “지방정부 신뢰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공동체 의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1(3). 149-174
- 김경환·박진우. 2023. “지역공동체 활동이 사회적 신뢰를 증진시키는가?-용인특례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5(1). 57-88.
- 김기동·이정희. 2017. “한국 시민들의 신뢰수준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연구”. 『아태연구』, 24(2). 5-39.
- 김남옥·석승혜·장안식. 2016. “왜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사회참여는 감소하는가?: 사회적 불안과 인정 경험의 영향력 비교”. 『사회와 이론』, 28. 33-67.
- 김시윤. 2009. “신뢰, 지식공유 그리고 경제발전”. 『한국비교정부학보』, 13(2). 227-246.
- 김재선·김공수·이국용. 2013. “팀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경영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3(12). 1-16.
- 김재선·김공수·이국용. 2014. “구성원 신뢰, 소속감, 성과기대가 팀 협력의지에 미치는 영향”. 『무역연구』, 10(6). 1137-1154.
- 김지영·정문기. 2024.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연구: 형식적 참여집단 및 비참여 전향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6(1). 57-78.
- 김철호. 2009.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학교의 웹 기반 정보 이용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e-Learning 이용을 중심으로”. 『청대학술논집』, 13(S-3).
- 박병진. 2007. “신뢰 형성에 있어 사회참여와 제도의 역할”. 『한국사회학』, 41(3), 65-105.
- 박용순·송진영. 2013. “사회구성체에 대한 신뢰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사회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 22. 134-159.
- 박혜원·문형구. 2006. “집단의 사회적 자본이 집단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정보자원, 사회적 지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인사·조직학회 발표논문집』, 233-269.
- 백유성·최재욱·김성근·우선창. 2013. “신뢰성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조직신뢰의 매개효과”. 『한국인사·조직학회 발표논문집』, 2013(1). 1-17.
- 송경재. 2008. “시민사회,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적 자본-한국과 필리핀을

- 중심으로-”. 『아태연구』, 15(2). 141-162.
- 송경재. 2013. “사회적 자본과 한국의 시민참여”. 『한국정당학회보』, 12(2). 221-244.
- 송진미. 2021. “거버넌스와 한국사회 신뢰수준에 관한 연구”. 『기본연구과제』, 2021. 1-285.
- 오승은·이정주·황은진·최시인·노승용. 2018. “우리나라 국민통합 수준 인식에 관한 연구”. 『다문화와 평화』, 12(3). 271-299.
- 우예영·박현정. 2024. “청년 취업자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의사결정의 관계에서 구직효능감이 지니는 매개효과: 인과매개분석을 활용하여”. 『열린교육연구』, 32(4). 43-63.
- 이경영·김범석·정문기. 2018. “주거환경 만족도가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지역애착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7(1). 89-118.
- 이경영. 2019.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 : 지역사회 주민참여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3(3). 209-232.
- 이인숙. 2015. “지역사회 주민참여 결정요인과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마을만들기’ 참여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7(2). 237-257.
- 이재현. 2020. “신뢰는 정치참여를 촉진하는가?: 사회적 신뢰와 정치적 신뢰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23(2). 317-347.
- 이종화·정진경. 2022. “타인에 대한 신뢰는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하는가?-대상별 신뢰 수준의 차별적 영향력 탐색-”. 『한국사회복지학』, 74(3). 229-253.
- 이준영·최낙혁. 2018. “커뮤니티 소속감에 대한 영향요인으로서 커뮤니티웰빙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2(1). 27-52.
- 장수찬. 2007. “한국 사회의 신뢰수준 하락과 그 원인: 국가 간 비교 분석적 관점에서”. 『세계지역연구논총』, 25(3). 125-156.
- 정승현 역. 2016. 『나 홀로 볼링』. Putnam, D, R. 2001. Bowling Alone. 서울:페이퍼로드.
- 조동민·백유영·이상호. 2021.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마케팅 활용과 지역공동체의 역할”.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1(5). 215-223.

- 진범섭. 2024. “코로나19 유행시기 언론정보의 적절성 인식이 시민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도덕적 신뢰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4(1), 503-514.
- 차재권·류태건. 2018. “중앙/지방정부신뢰의 영향요인의 차이점-대구광역시 사례연구-”. 『대한정치학회보』, 26(1), 81-107.
- 최예나. 2016a. “사회적 자본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연구=주민들과 선출직 기관들간 소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0(3), 69-88.
- 최예나. 2016b. “지방정부 주민참여의 결정요인 연구-주민과 선출직 기관 간 소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8(4), 129-152.
- 한상미. 2011. “지역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들의 사회자본 형성과정에 대한 경로분석-사회자본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5(1), 239-256.
- 홍성모·황진수·류지성. 2011. “사회자본의 지역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 논총』, 16(2), 291-319.
- 홍혜승·류은영. 2015. “신뢰가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4(2), 131-155.
- 황창호·이남국. 2018. “시민의 활동과 지역사회의 신뢰형성에 대한 연구”. 『현대사회와행정』, 28(3), 63-86.
- 리젠핑. 2020. “농촌관광 마을의 지역사회소속감 형성에 관한 연구:중국 위안가마을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 이기승. 2024. “주민자치가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아파트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일반대학원.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241-258.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Hanifan, L. J. 1916. “The Rural School Community Center” The Annals of the America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7. 130-138.

- Kline, R. B. 2010.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McMillan, D. W. &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6-23.

The Impact of Trust on Community Participa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nse of Belonging

Lee Hyeonseo * · *Han Dongwoo*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trust, sense of belongingness, and community participation,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the sense of belonging. According to the correlation analysis among trust, sense of belongingness and community participation, trust in regional connection(TR) showe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interest in political and social issues, visits to community websites, and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in the local area. Trusts in alumni connection(TA) and blood relation(TB)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interest in political and social issues and visits to local community websites. Sense of belongingness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R, TA and TB, interest in political and social issues, visits to local community websites, and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in the local area.

* First Author, Doctoral Student, Kangnam Univ.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Kangnam Univ.

Based on the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the key variables, the mediating effect of sense of belongingness was verified. The results revealed that sense of belongingness full medi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 and interest in political and social issues and partial mediati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R and visits to local community websites and participation in local social activities, as well as between TA and TB, and both interest in political and social issues and local community website visits. The significance tests for the mediating effects showed that all effec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proposed. First, efforts should focus on lowering barriers to local community participation, and local communities should actively take on promotional and linking roles in delivering local information. Second, continuous efforts by the local community are needed to implement strategies that strengthen residents sense of belonging by adopting both online and offline methods of engagement, which can help incorporate the voices of a broader range of local residents.

Key words : trust, sense of belonging, local community participation, mediating variable, regression analysis